CSRI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Chungcheongbuk-do Disaster Safety Research Institute

2022 04 vol.72

재난안전 Brief

이슈 Brief

2021년 충북도민 재난안전인식 조사결과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CRI 충북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Contents

이슈 Brief ····· 01

2021년 충북도민 재난안전인식 조사결과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 14

-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 시행 ····· 14
- 충북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가입으로 도민 안전망 구축 ····· 15
-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출산전·후 여성 마음건강사업 실시 ····· 15
-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매진하는 충북 ····· 16
- 충북도, 춘계(春季) 도로정비 추진 ····· 17
- 충북도, 전국 최초 과수화상병 예방 캠페인 추진! ····· 18
-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 19
- 음성군, 회전교차로에 교통섬 경관조명 설치 ····· 19
-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도내 전역 오존경보제 확대 시행 ····· 20
- 증평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 21
- 충주시, 봄철 가뭄대책 농기계 119 기동수리반 운영 ····· 21
-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받고, 화재공제도 가입하세요! ····· 22
- 충북도, 2022년 물놀이 등 안전관리 대책 추진 ····· 23
- 충북도, 필로티 구조 건축물 화재예방 대책 추진 ····· 24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 25

-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 ····· 25
- 디지털성범죄 예방법 알고 싶다면 '디클' 접속하세요 ····· 26
- 어린이 안전체험, 지역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 27
- 소방청, 건조·강풍 특보에 따른 대비태세 강화 ····· 27
-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 추진 ····· 28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로부터 블루카본 보호에 앞장서 ····· 30
- 드론길로 혈액배송 · 국가시설 안전감시, 드론 활용도 높인다 ····· 31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은 필수입니다 ····· 33
-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시범 운영 실시 ····· 34
- 행정안전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 점검으로 국민안전 확보 ····· 36
- 바다 나갈 땐, '해로드(海Road)' 설치하세요 ····· 37
- 중대재해사고, 사례교육으로 예방한다! ····· 38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 39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폐기물 관련 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 39
- 서울시, 산부인과·산후조리원 548개소 긴급 화재안전대책 추진 ····· 40
- 대전시, 재난안전교육 체험형 게임 '도로명 런닝맨' 운영 ····· 41
- 충남 논산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킨다 ····· 41
- 서귀포시, 재난취약기구 안전사고 예방 지속 추진 ····· 42
- 속초시, 재난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42
- 충남도, 자연재해 발생 따른 저수지 붕괴·파괴 대비 훈련 ····· 43
- 서울시, 공사현장에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해 사고 방지 ····· 43
- 양천구, 어린이 공원 26개소에 '스마트 공원등' 126대 설치 ····· 44
- 경주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 45

▮ 집필진

배 민 기 센 터 장 (043-220-1127)

최 신 실 연 구 원 (043-220-1118)

▮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주 소 | (2851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충북연구원 420호

홈페이지 | www.cri.re.kr/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csri_cri

재난안전 Brief는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주요 재난안전 정책동향을 시의 적절하게 적시하고
그에 따른 충청북도의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월간지로서 충청북도 및 충북연구원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북연구원 홈페이지 (www.cri.re.kr)에서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슈 Brief」

2021년 충북도민 재난안전인식 조사결과

1. 재난안전인식 조사개요

1) 조사개요

■ **조사대상은 충북 내 11개 시·군의 일반도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함**

- 총 1,640부를 계획하였으며, 실제 1,542부를 회수함
- 불성실 응답 설문지 67부를 제외한 1,475부를 분석에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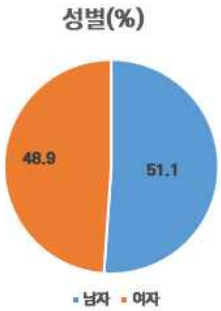
■ **조사항목은 재난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부문별 인식, 재난 및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인식, 재난관리역량 인식, 안전의식, 재난안전 분야별 주요시책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함**

〈 설문구성 〉

구분	세부문항	비고	
재난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부문별 인식	- 전반적 인식 : 안전중요성, 재난 및 사고 발생가능성, 재난 및 안전사고 요인증가, 전체사회·지역·개인 차원 안전인식 - 부분별 인식 : 화재, 교통사고, 범죄, 생활안전(안전사고), 자살(정신질환), 감염병(MERS, SARS, 신종인플루엔자 등), 자연재난, 산업재해, 붕괴사고, 환경오염, 사이버위협, 성폭력, 미세먼지, 가축질병(구제역, ASF, AI 등), 기후변화(폭염, 한파 등)	충북 전체	시·군별
재난안전사고 원인 인식	- 사고자의 부주의 및 안전불감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의 사전대처 미흡 - 재난안전 교육·훈련 미흡으로 인한 대응 미숙 - 소방, 경찰 등 긴급대응기관의 대응 미숙 - 재난안전 관련 법·제도의 미비 -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적절한 대처		
재난관리역량 인식	- 충청북도 관리역량(재난관리 전반, 자연재난, 사회재난) - 개인별 관리역량(행동요령, 안전수칙 준수, 정보 및 지식)		
안전의식	- 신분특성(일반 도민, 공무원) - 노동환경특성(사무직, 생산직, 농축산/어업) - 안전취약계층특성(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재난분야별 주요시책	- 화재, 교통안전, 범죄안전, 생활안전, 자살안전, 감염병안전 등 (중요도, 인지도, 수행도, 만족도)		
응답자 일반현황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거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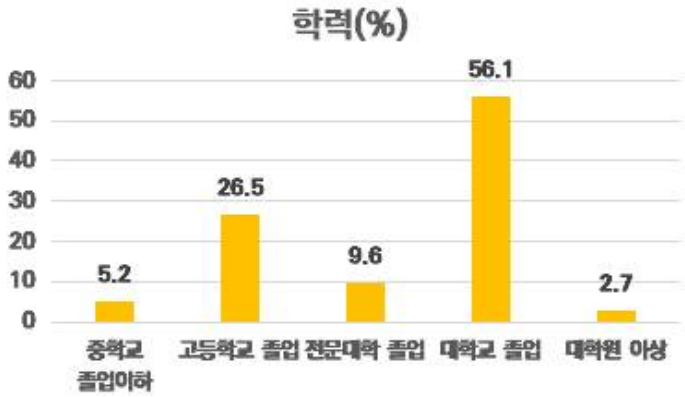
2)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배경 현황

■ 성별은 남자(51.1%)가 여자(48.9%)보다 많으며, 연령대는 30대 (28.6%), 40대(21.8%), 20대(18.8%), 50대(18.6%), 60대 이상(12.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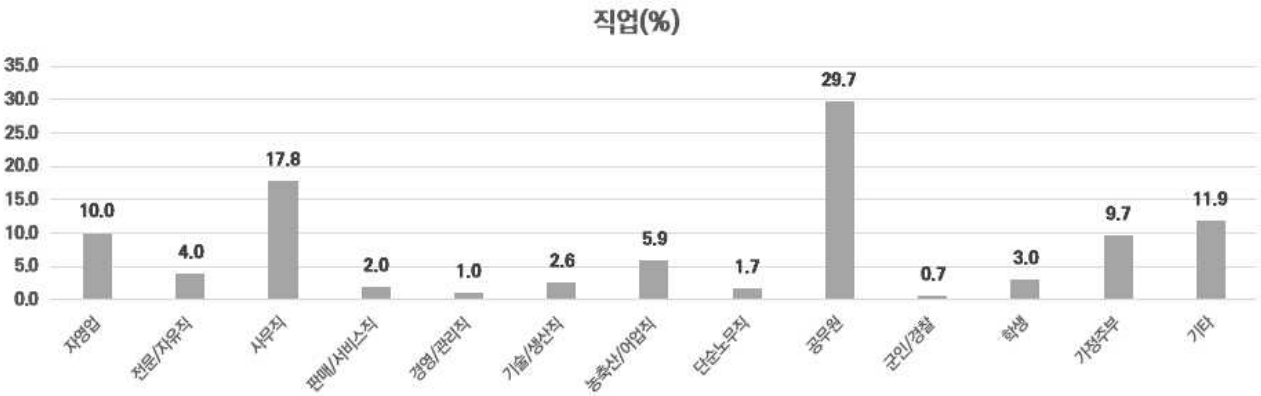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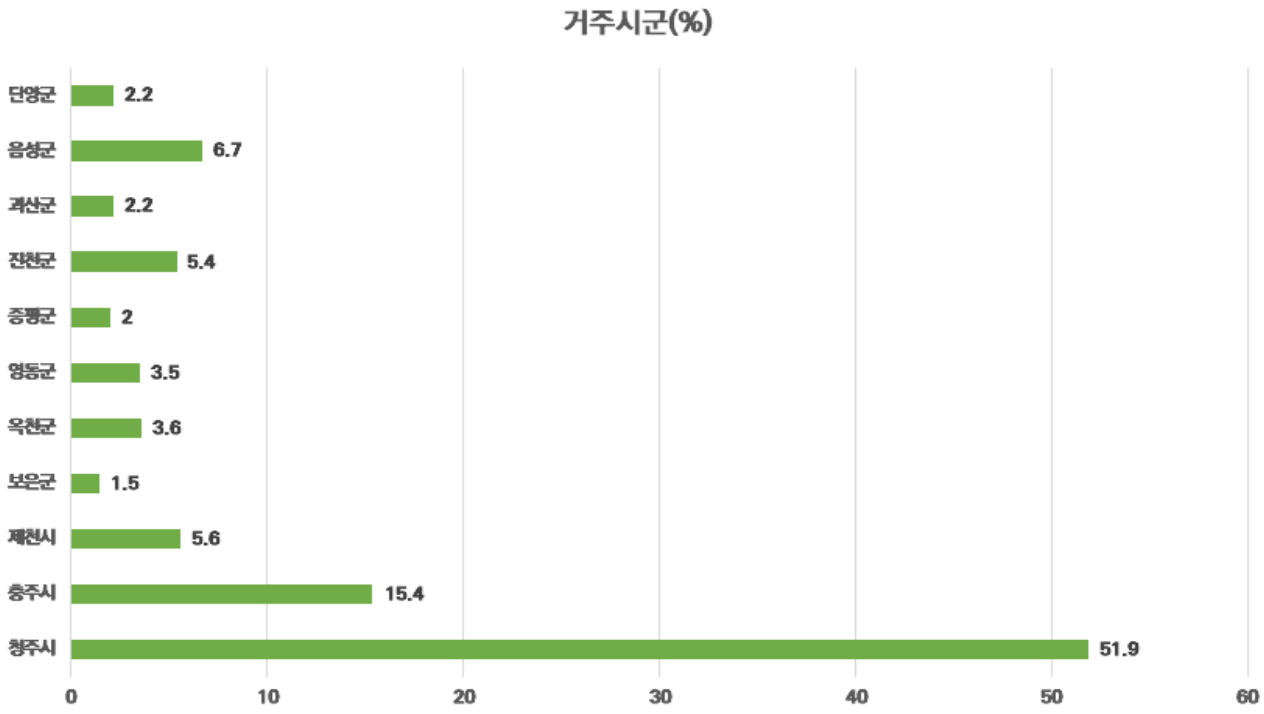
■ 학력은 대학교 졸업(56.1%), 고등학교 졸업(26.5%), 전문대학 졸업(9.6%), 중학교 졸업이하(5.2%), 대학원 이상(2.7%)순으로 나타남



■ 직업은 공무원(29.7%), 사무직(17.8%), 기타(11.9%), 자영업(10.0%), 가정주부(9.7%), 농축산/어업직(5.9%), 전문/자유직(4.0%), 학생(3.0%), 기술/생산직(2.6%), 판매/서비스직(2.0%), 단순노무직(1.7%), 경영/관리직(1.0%), 군인/경찰(0.7%) 순으로 나타남



■ 거주시군은 만인 당 인구수를 고려하여 배분된 설문부수에 따라 시지역은 청주시(51.9%), 충주시(15.4%), 제천시(5.6%) 순으로 많게 나타났으며, 군지역은 음성군(6.7%), 진천군(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만인 당 인구수를 고려하여 배분된 설문부수에 따라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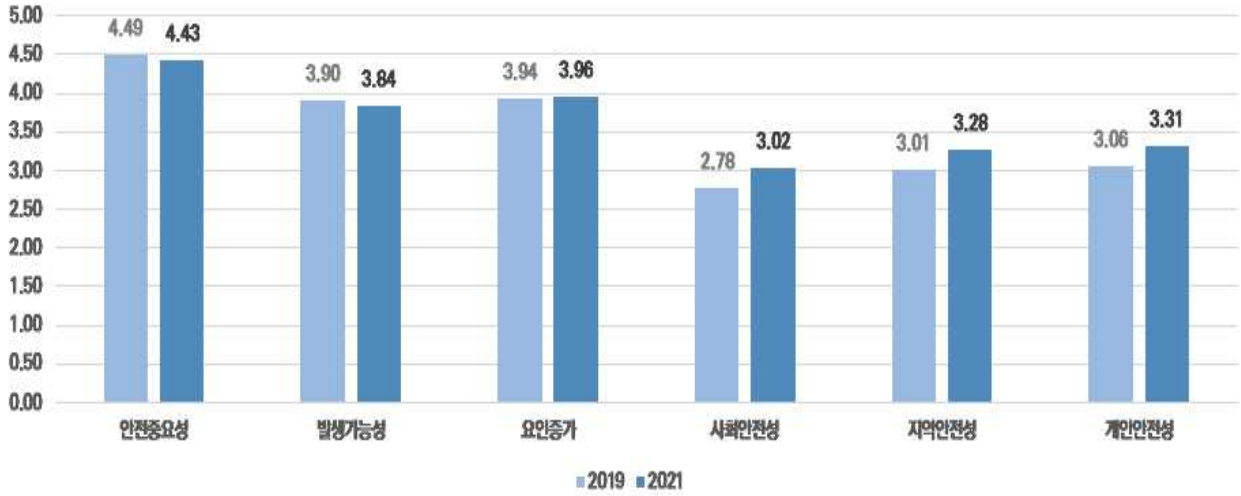
2. 충북 재난안전인식 조사결과

1) 전반적 인식 현황

■ 충북도민(응답자)의 인식 결과를 종합하면,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평균값 4.4292)

〈 재난안전에 관한 전반적 인식 평균 〉

구분	안전중요성	발생가능성	요인증가	사회안전성	지역안전성	개인안전성
평균	4.4292	3.8386	3.9580	3.0237	3.2786	3.3132
N	1475	1475	1475	1475	1475	1475
표준 편차	.74738	.79414	.81763	.88181	.81475	.81008



※ 5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렇다'를 의미

	분야	최고	최저
1	(안전중요성)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은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	단양군 / 4.69	옥천군 / 3.36
2	(발생가능성)본인에게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제천시 / 3.98	옥천군 / 3.40
3	(요인증가)최근 재난 및 안전사고 요인이 더 증가하고 있다	증평군 / 4.23	영동군 / 3.50
4	(사회안전성)현재 우리 사회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다	옥천군 / 3.45	단양군 / 2.72
5	(지역안전성)현재 내가 생활하는 지역은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다	옥천군 / 3.57	보은군 / 3.09
6	(개인안전성)현재 전반적으로 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다	괴산군 / 3.59	진천군 / 3.14

■ 재난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각 시·군별 응답평균을 살펴보면, 단양군이 4.6875로 가장 높았으며, 옥천군이 3.3585로 가장 낮음(전체 평균값은 4.4292임)

■ 응답자 본인에 대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가능성에 대해 각 시·군별 응답평균을 살펴보면, 제천시가 3.9759로 가장 높았으며, 옥천군이 3.3962로 가장 낮음(전체 평균값은 3.8386임)

■ 최근 재난 및 안전사고 요인의 증가에 대해 각 시·군별 응답평균을 살펴보면, 증평군이 4.2333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동군이 3.5000으로 가장 낮음(전체 평균값은 3.9580임)

■ 현재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우리 사회의 안전성에 대해 각 시·군별 응답평균을 살펴보면, 옥천군이 34528로 가장 높았으며, 단양군이 2.7188로 가장 낮음(전체 평균값은 3.0237임)

■ 현재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의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안전성에 대해 각 시·군별 응답평균을 살펴보면, 옥천군이 3.5660으로 가장 높았으며, 보은군이 3.0909로 가장 낮음(전체 평균값은 3.2786임)

■ 현재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응답자 자신의 안전성에 대해 각 시·군별 응답평균을 살펴보면, 괴산군이 3.5938로 가장 높았으며, 진천군이 3.1392로 가장 낮음(전체 평균값은 3.3132임)

2) 재난안전 부문별 인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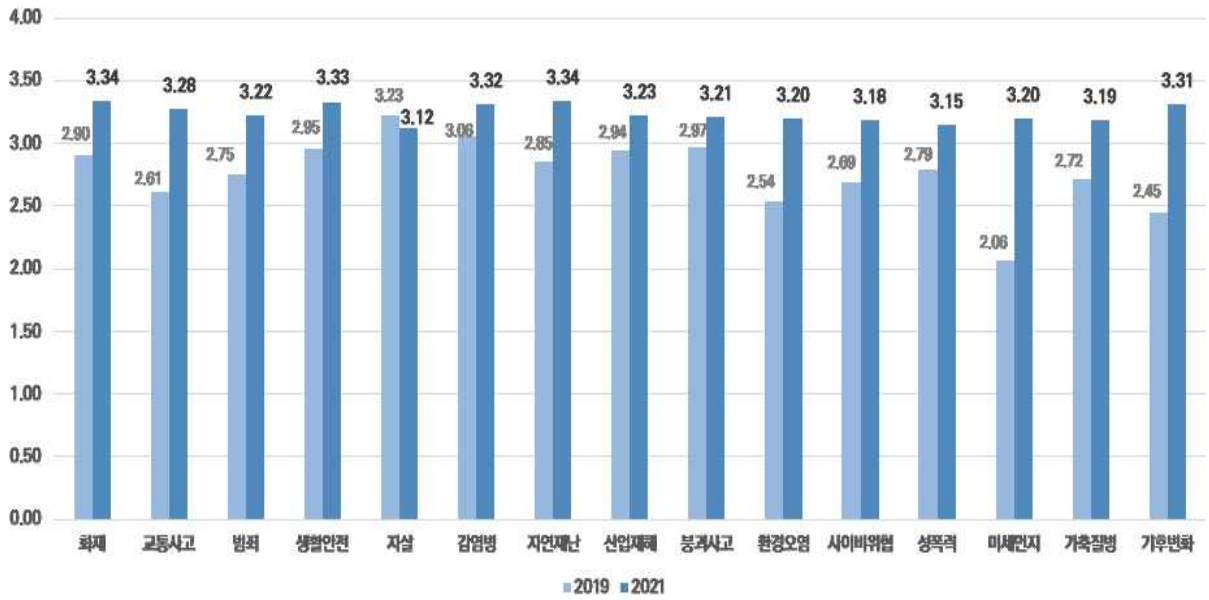
■ 재난안전 부문별 안전 인식조사를 종합하여 보면, 부문별 안전체감도가 낮은 순은 자살(3.1180) → 성폭력(3.1478) → 사이버위협(3.1803) → 가축질병(3.1898) → 환경오염(3.1986) → 미세먼지(3.2027) → 붕괴사고(3.2136) → 범죄(3.2176) → 산업재해(3.2278) → 교통사고(3.2786) → 기후변화(3.3092) → 감염병(3.3153) → 생활안전(3.3315) → 자연재난(3.3410) → 화재(3.3417) 등으로 나타남

〈 재난안전 부문별 안전도 인식 평균 〉

구분	화재	교통사고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난	산업재해
평균	3.3417	3.2786	3.2176	3.3315	3.1180	3.3153	3.3410	3.2278
N	1475	1475	1475	1475	1475	1475	1475	1475
표준 편차	.81945	.90471	.91466	.81576	.97578	.96281	.87459	.85814

구분	붕괴사고	환경오염	사이버 위협	성폭력	미세먼지	가축질병	기후변화
평균	3.2136	3.1986	3.1803	3.1478	3.2027	3.1898	3.3092
N	1475	1475	1475	1475	1475	1475	1475
표준 편차	.87469	.91453	.93552	.92081	1.00824	.96156	.89966

※ 5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렇다'를 의미



■ 자살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2019년 2점 대의 평균에서 2021년 3점 대의 평균으로 개선됨

- 특히 기후변화(2.45 → 3.31 / 0.86점 상승), 교통사고(2.61 → 3.34 / 0.67점 상승), 환경오염(2.54 → 3.20 / 0.66점 상승) 분야가 2019년에 비해 비교적 인식이 많이 개선됨
- 자살에 대한 인식은 2019년에 비해 낮아짐(3.23 → 3.12)

※ 5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렇다'를 의미

분야		최고	최저
1	화재	보은군 / 3.68	영동군 / 3.46
2	교통사고(보행, 이륜차, 자동차, 대중교통 등)	보은군 / 3.64	괴산군 / 3.03
3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 강간·추행 등)	진천군 / 3.46	제천시 / 3.06
4	생활안전(시설, 전기·가스, 작업, 여가활동 등)	옥천군 / 3.55	영동군 / 3.04
5	자살(정신질환)	옥천군 / 3.38	충주시 / 2.96
6	감염병(MERS, SARS, 신종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보은군 / 3.77	음성군 / 3.09
7	자연재난(태풍, 집중호우, 폭염, 한파 등)	보은군 / 3.68	괴산군 / 2.94
8	산업재해(작업환경, 도구 및 제품 등)	옥천군 / 3.55	음성군 / 3.05
9	붕괴사고(도로, 교량, 건축물 등)	옥천군 / 3.49	단양군 / 2.94
10	환경오염(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악취 등)	옥천군 / 3.43	단양군 / 2.94
11	사이버위협(사이버 테러 및 사기 등)	옥천군 / 3.40	보은군 / 2.91
12	성폭력(성매매, 성희롱, 데이트폭력 등)	옥천군 / 3.53	제천시 / 2.94
13	미세먼지	영동군 / 3.42	단양군 / 2.47
14	가축질병(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보은군 / 3.64	단양군 / 2.78
15	기후변화(폭염, 한파 등)	보은군 / 3.73	단양군 / 2.97

- ✓ **옥천군 : 7개 분야(생활안전, 자살, 산업재해, 붕괴사고, 환경오염, 사이버위협, 성폭력)에서 높게 나타남**
- ✓ **보은군 : 6개 분야(화재, 교통안전, 감염병, 자연재난, 가축질병, 기후변화)에서 높게 나타남**
- ✓ **진천군 : 범죄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 ✓ **영동군 : 미세먼지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 화재안전에 대한 시군별 응답평균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값은 3.3417이고 평균값보다 높은 지역은 보은군을 비롯해 진천군, 옥천군, 증평군, 괴산군, 청주시 등 6개 지역임

■ 교통사고안전에 대한 시군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값은 3.2786이고 평균값보다 높은 지역은 보은군을 비롯해 영동군, 증평군, 옥천군, 충주시, 단양군 등임

■ 범죄안전에 대한 시군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값은 3.2176이고 평균값보다 높은 지역은 진천군을 비롯해 옥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음성군 등 군 지역이며, 시지역은 전체 평균값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안전에 대한 시군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값은 3.3315이고 평균값보다 낮은 지역은 영동군을 비롯해, 충주시, 단양군, 음성군, 제천시 등 5개 지역임

■ 자살안전에 대한 시군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값은 3.118이고 평균값보다 낮은 지역은 충주시를 비롯해, 단양군, 음성군, 제천시 등 4개 지역임

■ 감염병안전에 대한 시군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값은 3.3153이고 평균값보다 낮은 지역은 음성군을 비롯해, 청주시, 영동군, 진천군, 단양군, 괴산군 등임

■ 자연재난안전에 대한 시군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값은 3.3410이고 평균값보다 낮은 지역은 괴산군을 비롯해, 단양군, 영동군, 제천시, 음성군 등임

■ 산업재해안전에 대한 시군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값은 3.2278이고 평균값보다 낮은 지역은 음성군을 비롯해, 영동군, 제천시,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등 6개 지역임

■ 붕괴사고안전에 대한 시군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값은 3.2136이고 평균값보다 낮은 지역은 단양군을 비롯해, 제천시, 괴산군, 충주시, 음성군 등 5개 지역임

■ 환경오염안전에 대한 시군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값은 3.1986이고 평균값보다 낮은 지역은 단양군을 비롯해, 충주시, 영동군,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등 7개 지역임

■ 사이버위협안전에 대한 시군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값은 3.1803이고 평균값보다 낮은 지역은 보은군을 비롯해,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등 5개 지역임

■ 성폭력안전에 대한 시군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값은 3.1478이고 평균값보다 낮은 지역은 제천시를 비롯해,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등이며, 충청북도 시지역이 모두 포함됨

■ 미세먼지안전에 대한 시군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값은 3.2027이고 평균값보다 낮은 지역은 단양군을 포함하여 괴산군, 진천군, 제천시, 음성군 등 5개 지역임

■ 가축질병안전에 대한 시군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값은 3.1898이고 평균값보다 낮은 지역은 단양군을 포함하여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괴산군 등 5개 지역임

■ 기후변화안전에 대한 시군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값은 3.3092이고 평균값보다 낮은 지역은 단양군을 포함하여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등 5개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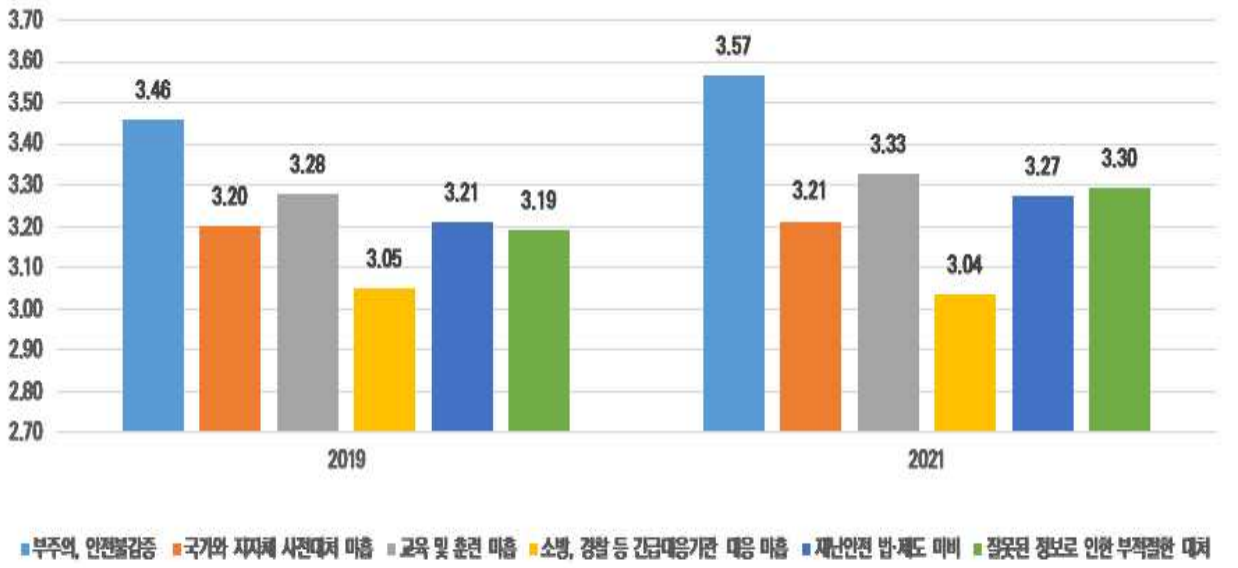
3) 재난안전원인 인식 현황

■ 재난안전원인 인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인으로 가장 높은 순은 부주의 및 안전불감증(3.5675) → 교육 및 훈련 미흡(3.3275) → 잘못된 정보 및 부적절 대처(3.2956) → 법제도 미비(3.2739) → 국가 및 지방정부의 사전대처 미흡(3.2136) → 긴급대응기관의 대응 미흡(3.0359) 등으로 나타남

〈 재난안전원인 인식 평균 〉

	부주의 및 안전불감증	사전대처미흡	교육훈련미흡	대응미흡	법제도미비	잘못된정보
평균	3.5675	3.2136	3.3275	3.0359	3.2739	3.2956
N	1475	1475	1475	1475	1475	1475
표준 편차	.82368	.84470	.84515	.85403	.83810	.82741

※ 5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렇다'를 의미



■ 2019년, 2021년 모두 부주의와 안전불감증, 교육 및 훈련 미흡이 가장 높고, 긴급대응기관 대응 미흡이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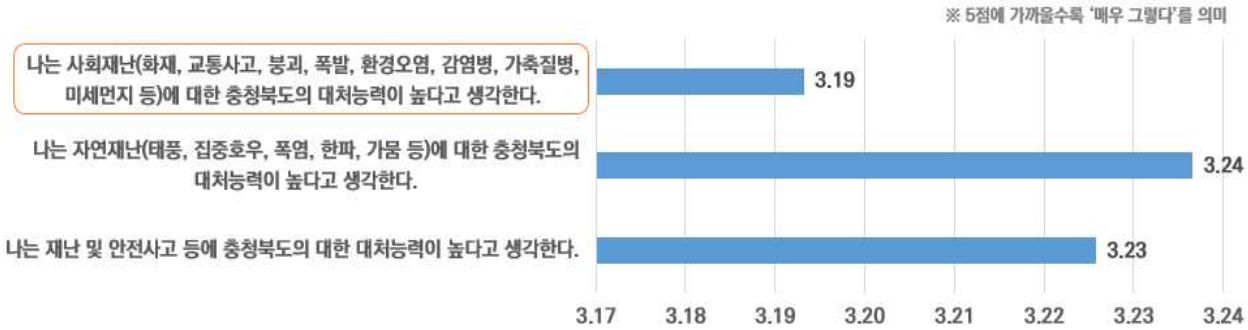
- 다음으로 2019년에는 재난안전 법·제도 미비, 국가와 지자체 사전대처 미흡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21년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적절한 대처, 재난안전 법·제도 미비 순으로 높게 나타남

4) 충청북도 재난관리역량 인식 현황

■ 충청북도 재난관리역량 인식결과를 보면, 큰 차이는 없으나 자연재난 관리역량(3.2366)이 사회재난(3.1932) 관리역량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청북도 재난관리역량 인식 평균 〉

구분	충청북도 전반적 재난관리역량	충청북도 자연재난 관리역량	충청북도 사회재난 관리역량
평균	3.2258	3.2366	3.1932
N	1475	1475	1475
표준 편차	.77609	.78245	.78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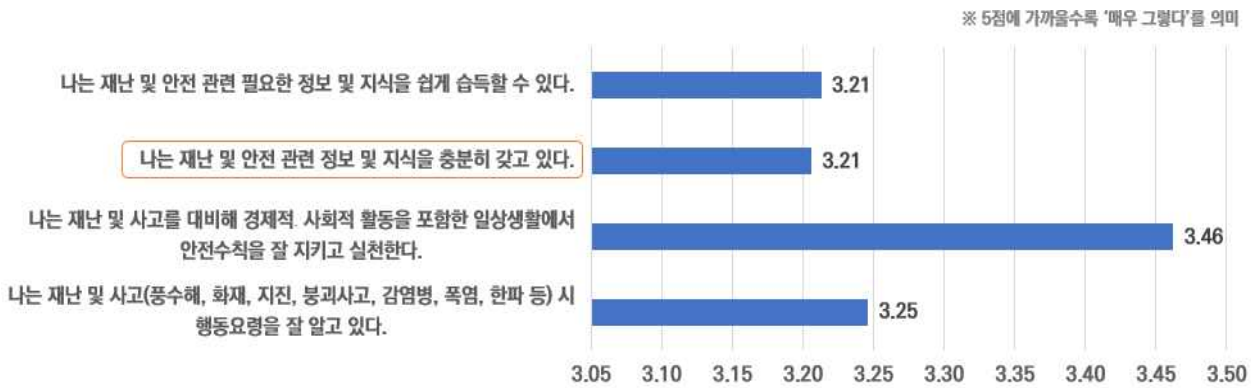


5) 개인 재난관리역량 인식 현황

■ 개인의 재난관리역량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인식을 보면, 안전수칙 준수(3.4624)가 가장 높았으며, 행동요령(3.2461), 재난안전 관련 정보 및 지식 습득 용이(3.2129), 재난안전 정보 및 지식(3.20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개인별 재난관리역량 인식 평균 〉

구분	행동요령	안전수칙 준수	재난안전 정보 및 지식	정보 및 지식 습득 용이
평균	3.2461	3.4624	3.2061	3.2129
N	1475	1475	1475	1475
표준 편차	.77603	.72214	.74829	.63007



6) 안전의식수준 인식 현황

■ 안전의식수준 관련 인식을 보면, 특성별로 공무원/공공기관(3.4420), 사무직(3.3064), 어린이(3.048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성별 안전의식수준 인식 평균 〉

구분	신분특성		노동환경특성			안전취약계층특성			
	도민	공무원/공공기관	사무직	생산직	농축산/어업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평균	3.2061	3.4420	3.3064	3.1837	3.1125	2.7749	3.0481	2.9614	2.8122
N	1475	1475	1475	1475	1475	1475	1475	1475	1475
표준편차	.73179	.76729	.75016	.78279	.79060	.90426	.85264	.79038	.88212



3. 결론

■ **충청북도 재난관리 정책 및 관리대책에 대한 충북도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전략이 필요함**

- 재난안전 부문별 안전에 대한 인식 결과를 보면, 특정 지역에 대한 안전인식이 편중되어 나타남
- 이는 재난안전 부문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전반적 재난 및 사고의 안전성으로 이해 될 수 있음
- 이에 부문별 안전 인식 중 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난 지역에 대한 재난관리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함

■ **재난 및 안전사고의 원인에 관한 도민의 인식결과, 부주의와 안전불감증 및 교육·훈련 미흡으로 인한 대응 미숙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측면의 재난관리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재난안전교육이 추진되어야 하며, 일반적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대응능력 향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노동환경적·계층적 특성에 따라 안전의식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계층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생산직, 농축산/어업직 등의 안전의식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이들 분야에서 안전사고 발생비율이 높기 때문임
- 노동환경 안전성 개선과 함께 종사자 스스로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함
-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의 안전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계층의 신체적·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함

■ **개인의 재난관리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관련 정보 및 지식 능력의 향상과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함**

- 특히, 경제적·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보전달 수단을 마련하여야 함

■ **충청북도 재난관리정책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대책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함**

- 특히, 적극적인 홍보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인지도 및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의 수행도도 함께 개선할 수 있음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 시행

- 충북권역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감염병 매개 모기 감시 강화 -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조사과
☎ 043-220-8603

◆ 일자
2022. 4. 4.

주요내용

■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내 모기 서식 실태를 파악해 모기 매개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4월부터 10월까지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감염병 매개 모기 감시 강화**

- 지난해 3월 22일 제주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체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첫 번째로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충북에서는 2020년(20.8.4 출현)보다 17일 정도 빠른 2021년 7월 18일에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발견
- 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모기 매개 감염병 환자 발생 지역인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의 우사 3개 지점에 모기 채집 장치를 설치해 모기 개체 수 및 밀도 조사 수행 예정
-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서식 환경변화 등으로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므로 이번 매개모기의 밀도 및 분포조사를 통해 향후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
- 이와 함께, 일본뇌염 매개모기 뿐 아니라 말라리아 매개모기(중국얼룩날개모기)를 대상으로 발생밀도 및 원충감염률 검사도 실시
- 이번 감시체계를 통해 매개모기의 발생시기 및 추세를 신속히 파악해 방제시기 예측 등 매개체 전파질환관리를 강화할 계획



충북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가입으로 도민 안전망 구축

- 청사, 지방도 등 도 관리 시설 453건 등록... 관리 하자 사고 보장 -

주요내용

■ **충청북도는 2022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 도 청사를 비롯한 시설물 453건에 대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가입**

-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의 관리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해 주는 제도를 의미
- 보상대상은 충북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시설물의 파손 또는 고장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로, 처리절차는 도내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물 담당부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고 공제회는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심사 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 예정
- 보상한도액은 대상시설별로 의무가입 보상한도 또는 관리 실정에 따라 설정

※ 단,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각 시·군의 소관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서 접수 후 처리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회계과
☎ 043-220-2833

• **일자**
2022. 4. 4.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출산 전·후 여성 마음건강사업 실시

주요내용

■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오는 8월까지 군내에 거주하는 출산전·후 여성의 우울증 예방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캠페인 '맘(mom)편히' 실시**

-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분만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52.6%('18년 50.3%)이고 출산 후 1주일간의 감정 상태에서 산후 우울 위험군은 42.7%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 이번 사업은 출산 전·후 여성 관련기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미래산부인과, 준소아청소년과의원, 다솜소아청소년과의원, 조이소아청소년과의원 등에서 실시
- 이들 기관에서는 기계를 활용한 스트레스 측정, 사정평가를 실시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우울감 개선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중등도 이상의 우울 고위험 임산부, 산모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해 우울증 치료를 도울 계획

• **지자체**
증평군

• **출처**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09306

• **일자**
2022. 4. 5.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매진하는 충북

- 중소기업의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시설 교체 비용 지원 -

주요내용

■ **충청북도는 도내 대기배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된 B-C유 등 중질유 사용시설을 청정연료 사용시설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 이번에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지원사업은 산업분야 제조업의 연소부문의 저녹스버너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교체 비용 지원
- 공급연료·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시설비의 90%, 최대 1억 8백만원을 지원하고,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사업장과 민원 유발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의 중질유 연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우선 지원할 예정
- 도내 산업단지 내 사업장은 충북도 누리집 공고문(www.chungbuk.go.kr)을 참고해 4월 6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충북도청 기후대기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산업단지 외의 사업장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

■ **충청북도는 전문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 및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

- 도는 사업을 통해 청정연료 전환시설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 대기배출사업장의 자발적인 친환경 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연료전환시설 설치로 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현저하게 저감시킴으로서 도민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계획
-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줄 것을 기대하며, 산업계 제조시설 연소부분의 청정연료 전환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기후대기과
☎ 043-220-4332

◆ 일자
2022. 4. 5.

충북도, 춘계(春季) 도로정비 추진

- 위임국도·지방도·시군도·농어촌도 2,460개 노선 10,399㎞ 대상

-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청결 유지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주요내용

■ **충청북도는 오는 4월 6일부터 위임국도와 지방도, 시·군도 등 2,460개 노선, 10,399km의 법정도로에 대해 각종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청결 유지 등을 위한 춘계(春季) 도로정비 실시**

- 춘계 도로정비는 지난 겨울철 강설에 따른 제설작업 등으로 인해 더러워졌거나 동결·융해 현상으로 기능이 저하된 각종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수해지역의 조속한 정비 및 응급복구 시설물 점검,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낙석·산사태의 피해방지를 위한 점검 및 도로순찰 강화 등 도로시설물을 일제 점검·정비해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제공
- 중점 정비사항으로는 균열, 포트홀 등의 포장노면 정비, 교량 및 터널 정비, 배수시설 정비,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 등의 도로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고, 특히 여름철 대비 수해지역의 조속한 정비 및 응급복구 시설물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
- 이를 위해 충청북도는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인력 및 장비 운영을 통해 지역(도로)특성을 고려한 도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2년 춘계(春季) 도로정비 추진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
- 향후 춘계 도로정비 결과에 대해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 후 연말 우수한 시·군에 대해 도지사 표창도 실시할 계획

< 우수사례 대표사진 >

안전시설물 설치 및 덧씌우기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수해도로 복구
		
노견청소	배수로 정비	낙석방지책 설치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도로과
  ☎ 043-220-4233
- **일자**
  2022. 4. 6.

충북도, 전국 최초 과수화상병 예방 캠페인 추진!

- 도내 과원 정밀예찰, 식물방제관 등 250명 활동 참여 -

주요내용

■ **충북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 발생 차단을 위해 사과·배 과원을 대상으로 4월 6일부터 집중예찰과 동시에 9월까지 과수화상병 경각심 제고 캠페인 추진**

- 충북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로 도내 사과·배 과수원 5,329호 4,004ha에 월동기간 궤양 제거와 농작업 현장 점검 집중 홍보 등 과수화상병 예방 인식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임
- 또한, 전 시군에서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3회분 공급을 신속히 마쳐 지역별 기상상황에 맞게 1차 사전 방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도 완료
-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과원 관리 캠페인은 도 농업기술원 및 11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직원 250여명이 4월 6일부터 8일까지 전 시군합동예찰과 함께 추진
- 이번 캠페인에서는 과원 입구에 리본을 부착할 예정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약제의 살포여부를 점검하고 자가 예찰과 발병 의심신고 독려
- 이번에 투입되는 식물방제관들은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전문가들이며, 앞으로도 주요시기별로 합동 예찰이 4차례 더 진행될 예정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기술보급과
☎ 043-220-5747

• 일자
2022. 4. 6.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 탐방객 대상 산불예방 홍보 강화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9일 미동산수목원에서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 이번 산불 예방 캠페인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진행
- 이날 산림환경연구소는 미동산수목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산불예방 안내문을 배부해 산불 예방 활동에 대한 공감과 참여 유도
- 또한 산림환경연구소는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을 최소화 하기 위해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주말 특별 기동단속도 실시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산림환경연구소 산림관리과
☎ 043-220-6183

• **일자**
2022. 4. 9.

음성군, 회전교차로에 교통섬 경관조명 설치

주요내용

■ **음성군은 지역내 회전교차로 등 교통섬에 LED 경관조명 설치**

- 군은 어두운 교차로 분위기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 주행차량 안전 등을 고려해 밝기를 최소화한 은은한 조명으로 군 캐릭터가 새겨진 LED 조명등 설치
- 설치 장소는 음성읍 반기문로, 금왕읍 숫돌고개, 맹동면 예다음3차, 대소면 삼정리 등 회전교차로 4개소와 음성읍 중앙사거리, 금왕읍 산단삼거리, 금왕읍 용계사거리, 맹동면 임대산단 입구, 대소면 오산사거리, 대소면 서울연합의원, 삼성면 김정삼거리, 감곡면 농협 앞 등 일반 교차로 8개소로 총 12곳에 설치
- 군은 특히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지역 분위기 조성과 야간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낮춰 교통 안전사고 예방 효과는 물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 **지자체**
음성군

• **출처**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09950

• **일자**
2022. 4. 11.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도내 전역 오존경보제 확대 시행

- 오존경보제 소외지역 해소로 지역주민 건강보호 -

주요내용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은 시기인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충청북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존 경보제 확대 시행**

- 오존은 자외선 강도가 강할수록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서 자외선 강도가 강한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주로 발생하여 오존주의보 발령도 4월에서 7월에 집중되는 경향 확인
- 고농도 오존(O3)은 자동차 배기가스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햇빛을 받아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므로, 햇빛이 강한 여름철 오후에 습도가 낮고 풍속이 약한 안정적인 기상 조건에서 주로 발생
- 오존 경보제는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제도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호흡기계통 질환을 앓고 있거나 경험하여 약해진 호흡기를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

■ **충청북도 전 지역(11개 시·군) 시행은 올해가 처음으로 과거 시행지역은 '98년 청주를 시작으로 '09년 청주, 충주, '15년 청주, 충주, 제천시를 대상으로 시행**

- 오존 경보제가 시행되면 1시간 평균 오존농도를 기준으로 주의보 0.12ppm 이상, 경보 0.3ppm 이상, 중대 경보 0.5ppm 이상 시 발령
-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경보 발령 시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리고 있어 정보 제공을 희망하는 도민은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홈페이지) '환경분야정보-대기환경-SMS 신청'란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
-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어린이는 물론 건강한 성인이라도 최근 코로나19 감염으로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경험한 경우 고농도 오존 노출에 특히 주의를 요하며,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



오존측정소(청주시 오창읍)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
☎ 043-220-6641

• **일자**
2022. 4. 13.

증평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주요내용

■ **증평군은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행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

- 군은 사업비 2억1천만 원을 들여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기타 안전시설 및 방호시설 설치를 통해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감속 및 주의 유도
- 대상지는 최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증평읍 신동리 대한노인회 증평읍분회와 연탄리2구 마을회관 그리고 도안면 광덕2리 하모산 경로당 주변 도로이고, 현재 설계 중으로 5월 중 착공해 7월 중 준공할 예정
- 고령층은 걸음속도와 차량에 대한 반응속도가 느려 보행자 교통사고의 비율이 어린이에 비해 현저히 높아 노인 보행자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지자체
증평군

◆ 출처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10541

◆ 일자
2022. 4. 14.

충주시, 봄철 가뭄대책 농기계 119 기동수리반 운영

주요내용

■ **충주시는 각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 장비 점검을 위해 '농기계 119 기동수리반' 운영**

-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충주지역 저수율은 충주시 관리 저수지 51곳 87.4%,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20곳 98.3%로 평년 수준 유지 중이지만,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가뭄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 시급
- 이에 농기센터는 가뭄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기계 119 기동수리반 긴급 편성



- 기동수리반은 상반기 농기계 순회 수리와 병행해 편성돼 지난 8일 대소원면을 시작으로 내달 3일까지 각 읍·면에서 보관 중인 양수 장비에 대한 작동상태 점검 및 수리를 실시할 방침
- 아울러 각 읍·면 및 농업인들에게 양수 장비 보관과 취급요령에 대한 현장 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

◆ 지자체
충주시

◆ 출처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10771

◆ 일자
2022. 4. 17.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받고, 화재공제도 가입하세요!

- 충북지방중기청·도·시군 합동 도내 20개 시장 2,142개 점포 대상 화재안전점검 실시 -

주요내용

■ **충북도는 충북지방중기청, 시·군과 함께 2022년도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4월 18일부터 올해 말까지 도내 총 20개 시장 2,142개 점포에 대해 화재안전점검 실시**

-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은 소방, 가스, 전기 각 분야별로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을 통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
- 중점 점검내용은 시장별로 상인 자체점검, 소방훈련 실시여부, 안전관련 시스템 운영 상태와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 내 소방·전기·가스시설 전반의 시설유지관리 실태 등 안전점검 진행
- 또한 점포상인을 대상으로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장비 사용방법과 화재안전교육도 실시하여 화재발생시 대처능력을 높이고 상인 안전의식 개선도 병행
- 이번 화재안전점검 이후에는 점검결과가 시스템을 통해 상인회, 도와 해당 시·군, 유관기관과 공유되어 안전 취약시설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
- 특히, 도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화재안전점검과 연계하여 취약한 소방·전기·가스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시장을 우선 지원해 나갈 예정
- 이와 더불어,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충북도와 도내 11시·군에서 가입비의 70%를 지원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가입을 독려하여 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 가입률을 높일 계획



출처 : CJB청주방송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사회적경제과
☎ 043-220-2564

• 일자
2022. 4. 17.

충북도, 2022년 물놀이 등 안전관리 대책 추진

-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으로 물놀이 등 사고 제로화 -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사회재난과
☎ 043-220-2424

• 일자
2022. 4. 19.

주요내용

■ **충북도는 이른 더위 등 기상변화에 따른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159만 도민들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2022년도 여름철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5월부터 본격 추진**

- 최근 5년간 도내 물놀이로 인한 사망사고는 7명이고, 다슬기 채취 사망사고는 24명으로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무시한 부주의로 사고 발생
- 이에 "도 및 시·군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는 원칙하에 도내 하천, 계곡 등 물놀이 지역 142곳 중 관리지역 78곳, 위험구역 40곳, 다슬기 채취 위험구역 24곳을 지정하고, 이들 지정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추진

■ **이번 대책은 물놀이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 물놀이 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강화, 안전관리요원 배치, 다슬기 채취 위험구역 안전대책 추진 등 점검 등을 중심으로 추진**

- 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점검체계 구축하고, 전문 안전관리원 332명 배치, 수난자 구조, 위험지역 통제, 비상근무반 편성,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예방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
- 특히, 물놀이 점검 시 다슬기 채취 관련 특별점검을 병행 추진해 인명피해 사고 미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
- 시기별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5월중 안전시설물 확충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을 추진해 안전시설물 중 훼손되고 노후된 구명조끼, 로프, 대형부표 및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물놀이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여가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
- 또한 다슬기 채취, 음주수영 등으로 발생된 익수사고들의 대부분이 물놀이 관리 지역이 아닌 위험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집중 순찰하고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
- 이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을'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 및 시·군에 11개반 누적치 3,300여명의 물놀이 전담(T/F)팀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비상근무 운영

충북도, 필로티 구조 건축물 화재예방 대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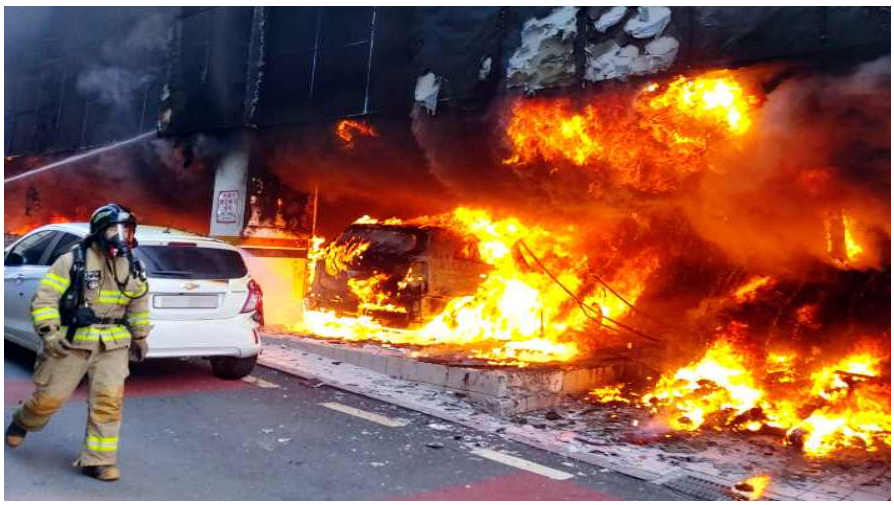
- 필로티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 및 필로티 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건의 -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예방안전과
  ☎ 043-220-4865
- **일자**
  2022. 4. 21.

주요내용

■ **충북도와 충북소방본부에서는 최근 청주산부인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로티 구조 건축물 화재예방 대책 추진**

- 최근 5년(2017~2021)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현황을 보면 총 7,467건의 화재 중 필로티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81건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전체 97명 중 31%(30명)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치 기록
- 필로티 건축물이 화재에 취약한 이유로는 1층에 화재 발생 시, 화염·연기로 인한 지상 출입구 피난 장애, 계단 및 승강기로 연기 유입 시 굴뚝효과로 인한 연기 확산, 가연성 외장재 사용 등으로 인한 연소 확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확인
- 필로티 구조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한 2017년 제천화재 사고 이후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제도는 많이 강화되었지만, 법률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전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 확인
- 이에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필로티구조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소방·건축 특별합동점검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 건축물 관계자 자율점검 확립을 위한 화재안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
- 또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내실 있는 건축물 정기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축 건축물의 방화성능 확보를 위해 인·허가 시 내외부 마감재 방화성능 검토, 감리업무 준수 여부 확인, 성능위주설계심의 등을 철저히 이행할 예정
- 이와 함께 화재의 원인인 배관 동파방지용 열선 시공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로티 상부 배관의 외기 노출을 차단시키는 방안으로 화장실 층상배관 공법, 단열 덕트설치 등을 필로티 설계단계부터 적용하도록 건축사협회에 권고하고, 그동안 미비되어 있는 필로티 건축물 설계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필로티 건축물 설계지침” 제정을 건의할 계획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

- 4월 5일(화)부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개정(2022.1.4.)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마련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4월 5일(화) 시행**

- 이번 시행령은 반복적인 풍수해로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복지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

■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그동안 정부가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지원하고, 태풍 및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보상**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능

■ **이번에 시행령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크게 정부가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규정과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차액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먼저,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령 했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는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풍수해보험법」제23조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산사태취약지역·해일위험지구·상습설해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내 주택

- 또한, 풍수해로 인해 지급받는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

※ 그동안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주택·온실 등 사유재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 보험기간 내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된 이후 재난피해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와 보험목적물에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해당

※ (예시) 보험가입금액이 450만 원인 경우, 1차 침수피해로 보험금 400만 원 수령 시 2차 침수피해를 입으면 보험금 50만 원만 지급. 이 경우 2차 피해 시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200만 원보다 보험금이 150만 원 적음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보험과
☎ 044-205-5354

◆ **일자**
2022. 4. 4.

디지털성범죄 예방법 알고 싶다면 '디클' 접속하세요

- 온라인 활용 초·중·고 학령별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공 -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기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공간(이하 '디클'*)을 구축하고, 6일부터 시범운영 실시**

* '디클(dicle)'은 '성범죄가 없는 디지털 세상, 디지털 세상을 클린하게'의 줄임말임

- 여성가족부는 2019년 '엔(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가 사회 문제화되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초·중·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공간을 마련

* 디지털성범죄 피해현황 '연령별' : 10대 24.2%, 20대 21.2%, 30대 6.7%, 40대 이상 4.4%('20년, 여가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피해자는 전년대비 79.6% 증가('22년, 여가부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보고서')

■ **'디클' 누리집(www.kigepe.or.kr/dicle)은 4월 6일부터 시범운영 후 5월 2일 정식 서비스시작 예정**

- '디클'은 피시(PC)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는 스마트폰, 휴대용(태블릿) 피시(PC)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학습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초·중·고등학생별 접속 화면을 구분하여, 접속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된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 시범운영 기간동안 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통해 보완 필요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5월 2일 정식 서비스 시작에 맞춰 '디클'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진행

※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디클'에서 확인 가능

■ **'디클'에서 제공하는 교육콘텐츠는 2021년도에 제작된 신규 콘텐츠로, 초·중·고 학령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

- 교육대상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감수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서비스 수요자가 직접 참여

※ (기획·제작 단계) 미디어·젠더·교육 전문가, 학생·학부모·교사 등 수요자
(감수 단계) 학생(교육 대상자), 장학사 등 교육·언론계 전문가

- 해당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들이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불법촬영 및 비동의 유포, 가짜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이해하고,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

* 디지털성범죄 피해현황 불법촬영 32.1%, 유포 22.7%, 유포불안 15.0%, 유포협박 13.8%, 사진합성 5.0%, 사이버 괴롭힘 4.4%, 기타 7.0%('20년, 여가부)

- 특히, 교육 콘텐츠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대상에게 친밀한 예능 이야기 공연, 웹 드라마, 고민상담소 등의 형식을 활용해 차별화함

◆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 **문의**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교육혁신팀
☎ 02-2100-6563

◆ **일자**
2022. 4. 5.

어린이 안전체험, 지역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 행안부, 민관협업「2022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운영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전국 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생활안전교육을 진행하는 종합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2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매년 전국 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진행
- 행안부는 올해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위하여 3월 23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관과 더불어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
- 특히, 올해는 산불피해 지역인 동해시를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안전체험관 접근이 힘든 농어촌과 도서벽지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등 소외지역 아동들에게도 안전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
- 또한,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야영장 안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급제동에 대비한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 체험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30여 가지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과 현장(오프라인)에서 제공할 예정
-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문화교육과
☎ 044-205-4276

◆ **일자**
2022. 4. 5.

소방청, 건조·강풍 특보에 따른 대비태세 강화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대비단계 발령, 상황 발생 시 전국 소방력 신속 동원 -

주요내용

■ **소방청은 산림화재로 인한 대형재난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대비 단계' 운영**

-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건조 및 강풍 특보가 발효되었고 금일부터 강원 일대 양간지풍의 영향권에 놓이게 됨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대비 단계' 운영 실시
- 이는 지난 3. 4. ~ 3. 13. 경북·강원 일대에 발생한 산림화재와 같은 확산형 재난의 발생 전부터 피해 집중 예상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대비 단계' 운영에 따라 강원도 등에서는 동해안지역에 자체 소방력 전진배치 하였고, 소방청에서는 유사시 국가적 차원의 소방활동을 위해 상황관리체계 강화 실시
- 아울러, 전국 소방력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사전 지정된 소방차량을 신속히 동원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도 강화할 예정

◆ **주관부처**
소방청

◆ **문의**
소방청 대응총괄과
☎ 044-205-7564

◆ **일자**
2022. 4. 8.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 추진

- 야생멧돼지 집중 관리 및 선제적 농장 차단방역 -

주요내용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역이 급속히 확산되고, 봄철 영농활동 및 입산객 증가 등으로 양돈농장에도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 추진**

-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검출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 보은 및 충주에 발생(1월 28일)한 후, 경북 상주(2월 8일), 울진(2월 10일), 문경(2월 22일)에서도 감염된 폐사체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등 오염지역 확대

- 또한, 봄철 출산기(4~5월) 이후에는 야생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하고 수풀이 우거지면서 폐사체 수색·포획이 어려워지고, 입산 등 활동 증가에 따른 오염원 접촉으로 추가적인 확산 우려

  * 야생멧돼지 1마리가 약 4개월간 임신하여 평균 5마리 출산

1 야생멧돼지 상시 관리체계 강화	2 선제적 농장 차단방역
• 발생상황별 전국을 3단계 구분·관리 • 멧돼지 서식밀도 저감 지속 추진 • 전국 ASF 감시체계 강화	• 양돈농장 소독·방역시설 보완 • 모돈·복합영농 등 취약요인 관리 • 농장종사자 방역수칙 홍보·교육 강화

■ **중수본은 4월 중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차단 상시 관리대책(2022.4~12.)'을 마련하여,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상황을 연중 상시 관리할 계획**

-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집중관리지역*', '기존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비발생지역)' 3단계로 구분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 최근 3개월 이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및 인근 확산우려지역, 경기·강원·충북·경북 23개 시군 (가평, 양평, 영월, 태백, 삼척, 원주, 홍천, 횡성, 단양, 제천, 보은, 충주, 괴산, 영동, 청주, 상주, 울진, 문경, 봉화, 영주, 김천, 구미, 예천)

- 집중관리지역에서는 열화상 무인기(드론)팀, 상설포획단(30명 이상/시군) 및 전문 폐사체 수색반을 운영하여 추가적인 확산 차단을 위한 포획·폐사체 수색에 집중

- 한편,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서식밀도 완화가 필요한 비발생지역(사전예방지역)에서도 상설포획단(10명 이상/시군)을 구성하여 포획·폐사체 수색을 병행하도록 하여 확산 여부를 감시(모니터링)할 계획

■ **환경부는 올해 전국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를 0.7마리/㎢ 이하로 저감하기 위해 시도별로 포획목표를 설정하고, 4월부터 비발생지역을 포함하여 농작물 피해신고 없이도 야생멧돼지에 대하여 연중 상시 포획 지속**

◆ **주관부처**
환경부

◆ **문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 044-201-7492

◆ **일자**
2022. 4. 10.

- 포획성과가 부진하거나 집중포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전문 엽사를 투입하거나 전문 포획자원*의 집중을 통해 포획을 강화할 계획

  * 먹이터 조성, 열화상카메라 장착 무인기 등 첨단장비 활용 과학적 포획방법 동원

■ 전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시체계 강화

- 4월부터 모든 포획 개체에 대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오염원 조기 감지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시군 단위의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조사를 강화(분기별 1회 이상)하여 서식상황 정보기반 체계화 실시

  * 기존 : 포획개체의 30%만 표본 검사 → 강화 : 100% 전수 검사

- 또한,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양·음성 구분없이 20만 원으로 통일(기존 양성 20만 원, 음성 10만 원)하고, 출산기(3~5월) 성체(60kg 이상)의 포획 개체에 대해서는 포획포상금을 상향(20→30만원)하는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 고시(환경부)' 개정도 추진

- 아울러, 기존 설치된 차단울타리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3월 28일부터 2주간 해빙기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태원 등)·지자체 합동 일제점검*도 실시

  * 해빙·산불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 울타리 훼손 여부 파악하여 즉시 보수, 특별점검 후에는 울타리 현장관리인(120여명) 활용하여 점검 지속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인접지역 양돈농장(54개 시군, 1,256호)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4월까지 설치하고, 그 외 지역 양돈농장은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

  * 7대 방역시설 기준 2,012호(37%) 완료(발생지역 97%, 인접지역 80%, 그 외 21%)

- 농가에서 설치를 어려워하는 시설(내부울타리·전실 등)에 대해 농장 여건별 설치 요령(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여 농가들의 신속한 설치를 독려하고,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상황에 대비하여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 설치하기 위해 시도별 추진상황 점검*도 실시

  * 강원, 제주를 제외한 7개 도별 월 2회 실시(시군별, 농가별 추진상황 점검)

- 전국 양돈농장을 중요도·취약요인에 따라 점검 대상을 세분화*하여 점검 실시

  * 양돈 밀집단지, 멧돼지 방역대, 수탁·임차농장, 모돈 사육농장, 그 외 농장

- 그동안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21호 중 17호가 모돈에서 발생한 점, 양돈농장 시설 공사 중 발생(화천)한 사례를 감안하여 방역시설 설치 시 방역조치, 모돈사 방역관리 상황, 경작 활동(텃밭 포함) 병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 모돈사 공사 금지, 모돈 출하 전 전수검사, 소독 강화 및 영농장비 반입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상황 지도 병행

-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소독차량 786대를 동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군(642호), 백두대간 포함 시군(185호), 밀집단지(655호) 등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농장 주변과 연결도로 등을 집중 소독

- 또한, 전국 한돈협회 지부장 및 양돈조합 간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농협 등을 통해 양돈조합 또는 회원 농가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문가 교육 및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전국 양돈농가에 배포할 계획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로부터 블루카본 보호에 앞장서

- '해양경찰청 블루카본 보호 예방 추진계획'마련하여 시행 -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로부터 염습지 등 블루카본 보호를 위해서 '해양경찰청 블루카본 보호 예방추진계획' 시행**

※ 블루카본 : 염생식물, 잘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갯벌 등의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 지난 2007년 말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사례와 같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로 연안생태계를 한번에 훼손시킬 수 있으며 원래 모습으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경험
- 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총괄 기관으로서 해양오염사고로부터 염습지 등 블루카본 보호를 위해 해양환경 보전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앞장서 나갈 계획

■ **주요내용으로 해양오염사고로부터 서·남해에 집중된 블루카본 보호를 위해 주변 해역 통항선박에 대한 오염물질 적법처리 점검을 강화하고 영세한 선박에 대해서는 홍보와 지도 확대 예정**

- 또한, 관계 기관 및 기업 등과 협업해서 블루카본과 연계한 해양오염예방 콘텐츠 공모전 등으로 기후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적 관심과 참여 확대

■ **앞으로 관계기관, 지자체, 환경단체,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서·남해에 밀집한 블루카본 보호구역을 포함해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과 연계하여 수중·연안정화 활동 확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기업 등과 협업하여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사이클링 활성화도 지속 추진 예정
-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로 유입되는 부유 쓰레기와 괭생이모자반, 적조와 같은 유해성 생물 발생 등 기후환경 위기대응 밀접분야에 대한 해상 재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블루카본 생태계를 위협하는 다량의 부유 쓰레기 유입시 경비함정, 방제정, 항공기 등 가용세력을 동원하여 신속히 수거지원하고 괭생이모자반, 적조 발생 시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블루카본 보호구역 유입 차단 등 연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방제지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

◆ **주관부처**
해양경찰청

◆ **문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해양오염예방과
☎ 032-835-2197

◆ **일자**
2022. 4. 11.

드론길로 혈액배송 · 국가시설 안전감시, 드론 활용도 높인다

- 드론교통관리체계(K-드론시스템) 실증지원 사업자(7개 기관) 선정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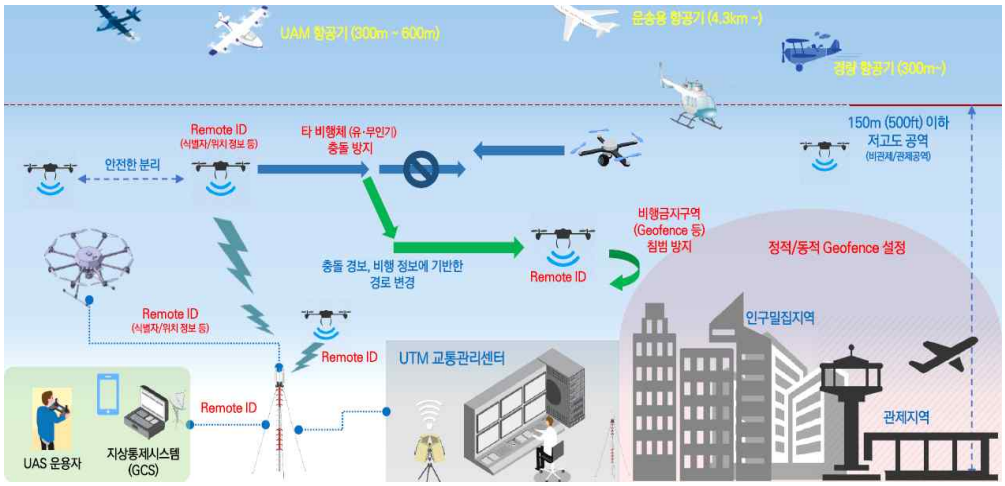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는 'K-드론시스템*' 실증 공모사업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공항공사, KT 등 7개 수행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전한 드론길을 발굴하고, 혈액배송, 재난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등 드론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실증사업 추진**

* K-드론시스템은 드론의 비행계획승인, 위치정보 모니터링, 주변 비행체와의 충돌방지 기능을 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

- **실증사업 수행자는 K-드론시스템 연구개발(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을 실생활 영역에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비즈니스 영역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교통관리체계* 운영 실증**

* 드론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통신장비와 웹기반 드론비행허가 관리체계

〈 드론의 활용과 드론교통관리 개념 〉



■ **이번 '22년 실증사업은 실제 사업화 가능성이 크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총 5개 분야*에서 진행**

* (도심 · 비행로) 한국국토정보공사, (공항 · 특수시설) 한국공항공사, KT, (공공) 한국수자원공사, 한컴인스페이스, (민간) 시스테크, (자유공모) 해양드론기술

- **실증사업 중 공항 · 도심분야는 '21년에 이은 2회째로 조금 더 고도화된 기술검증이 진행되고, 배송에 대해서는 이미 상용화된 해상 물품배송에 추가하여 병원으로 혈액을 배송하는 비행 실증도 추가**

※ '21년도(3개 분야, 총 7개 기관 참여), '22년도 (5개 분야, 총 7개 기관 참여)

◆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 **문의**
국토교통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 044-201-4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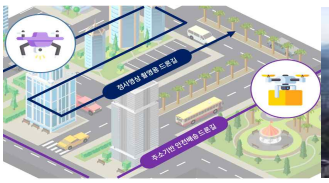
◆ **일자**
2022. 4. 13.

■ **(도심 · 비행로 발굴 분야) 통신적 · 물리적 안전성을 확보한 도심 내 '임무형(배송, 촬영, 감시 등) 드론길' 발굴 및 실증**

- 국토정보 취득을 위한 드론촬영 작업과 주소기반 드론 배송서비스 실현을 위해 드론교통관리 기능이 구현된 안전한 드론길 발굴(한국국토정보공사)

■ **(공항·특수시설 분야) 주요 국가시설 및 주변지역 비행지원을 위한 드론식별, 비행정보 공유 등 교통관리 기능 구현**

- 국가시설(항공무선표지시설) 인근 재난대응 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교통관리 기능을 실증(한국공항공사)하고, 육군에서 활용하는 유·무인기 교통관제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식 실증(KT)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



한국공항공사
(항공교통표지소)



KT
(이천, 논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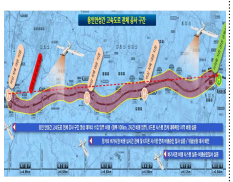
■ **(공공 분야) 공공기관의 상시업무 수행에 드론교통관리 기능을 접목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국가중요시설(수계, 댐, 취수시설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업관리 모델을 실증(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한국적십자충북지사와 오송베스티안병원 간(약 7.8km) 혈액배송을 위한 비가시권 비행 실증(한컴인스페이스)

■ **(민간 분야) 드론을 활용한 민간 상용서비스에 드론교통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안전 강화**

- 고속도로 공사구간 공정관리를 위한 장거리 드론 영상촬영 사업모델에 드론교통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실증(시스테크) 추진

■ **(자유공모 분야) 부산 영도 일대 해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기체들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드론교통관리 절차 실증(해양드론기술)**



시스테크
(안성-용인 고속도로)



한국수자원공사
(대구)



한컴인스페이스
(충북 청주시)



해양드론기술
(부산 영도 일대)

- 이 사업을 통해 도심 내 '특정목적(배송, 촬영, 감시 등) 드론길' 발굴, 국가중요시설 주변 드론관리, 드론교통관리 서비스 사업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올해에 추가된 특수시설 분야를 통해, 지역의 보안 · 안전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여 드론 교통량 증가에 대응한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은 필수입니다

- 행안부,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이하'안전교육사업')' 전국적으로 실시**

- '해인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어린이안전법」)에 따르면,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 의무

  *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16.4월)을 계기로 제정·시행('20.11.27.)

- 다만, 일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시설은 교육비가 부담되어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

- 이에 행정안전부는 교육 대상 기관 중 '정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과 '읍·면에 소재한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약 7만 명에게 무료 교육을 지원할 계획

- 안전교육은 총 4시간으로 이론(2시간)과 실습(2시간)으로 진행되며,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 등으로 구성

- 실습 교육은 코로나19 방역규제 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비대면 쌍방향 교육방식을 통해 진행되며, 향후 방역규제가 완화되면 대면교육으로 전환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

- 교육은 공모로 선정된 전문기관(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육자료 개발 및 전문 강사 확보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진행

- 교육 신청을 원하는 시설 또는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www.kcpi.or.kr) 누리집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접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론+실습)》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 044-205-4218

◆ **일자**
2022. 4. 14.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시범 운영 실시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

※ ’22.3.16.~4.6. 간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실시

-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인천의료원(인천), 울산대학교병원(울산), 조선대학교병원(광주),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 충북대학교병원(충북), 전북대학교병원(전북), 창원한마음병원(경남) 총 8개 의료기관이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현황(’21년 말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40	6	18	15	3	10	21	1	4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1	26	11	28	18	11	12	5	285

- 이들은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에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자문 등을 수행하며 의료기관들을 연계하는 역할 담당
- 시범사업은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등 8개 시·도에서 우선 시작하며, 올 연말까지 성과를 평가하여 17개 시·도로 확장을 목표

■ **아동학대 학대의심 신고, 조사·결정, 피해아동 지원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

- 진료 과정에서 발견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 조사·결정과정에서 필요한 진단서·소견서 발급과 의학적 자문,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치료 지원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필요
-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에 근거하여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에 285개 의료기관이 지정

*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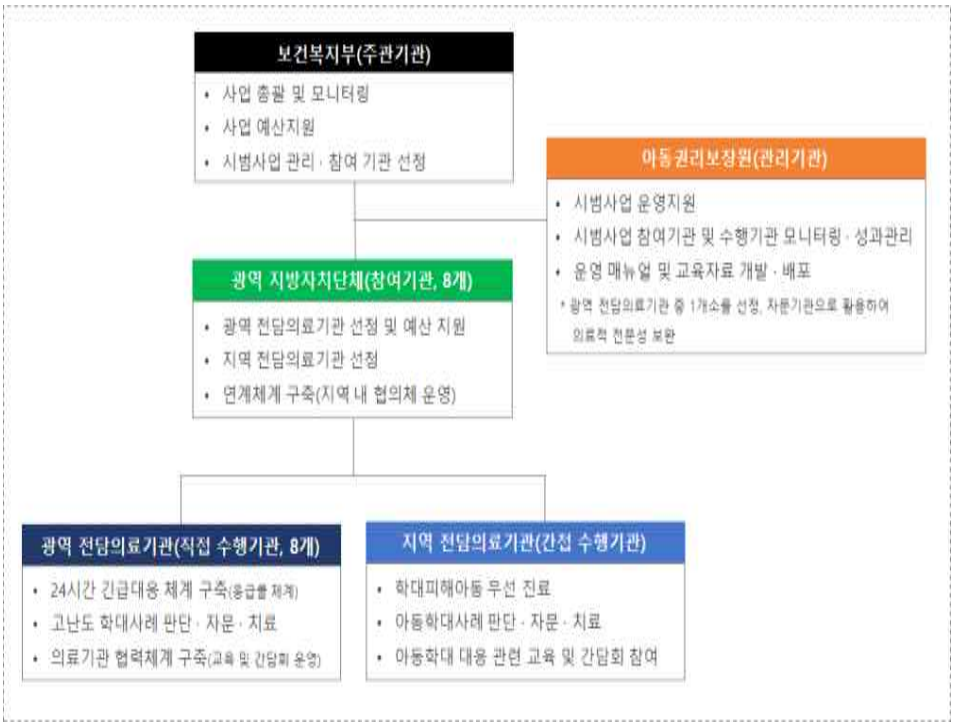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 도입**

◆ **주관부처**
보건복자부

◆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044-202-3381

◆ **일자**
2022. 4. 15.

〈 시범사업 추진체계도 〉



-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광역 전담의료기관'과 '지역 전담의료기관'으로 나누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업할 수 있는 모델 제시
-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아동학대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 광역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자문·치료 등 직접적인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지역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자문 등을 통해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 담당

  * 사회사업팀을 중심으로, 다양한 진료과의 의사, 간호사 및 변호사 등 다학제적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판단·치료를 위한 자문 제공

- 지역 전담의료기관들은 학대피해아동 우선 진료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기본적인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광역 전담의료기관과 긴밀하게 소통
- 특히, 서울시 거점전담의료기관으로서 유사사업 경험이 있는 서울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는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서 의료적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

■ **4월 15일(금)에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전담의료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시범사업 운영 설명회*를 실시하여 참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시범사업 운영 매뉴얼, 서울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 운영 사례, 학대피해아동의 의학적 징후 및 평가 방법 등 안내

- 이후에도 참여기관 대상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연말에는 워크숍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기관을 선정할 계획

행정안전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 점검으로 국민안전 확보

-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지역 등 위험요인 60여 건 발굴 · 해소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0여 건의 위험요인과 제도개선사항 등 발굴**

-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 옹벽 · 석축, 산사태 위험지역, 국립공원 등 35개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
-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 점검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급경사지 배수로 이물질 제거 미흡, 국립공원 낙석위험 안내표지판 미설치 등이 있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14건)
- 또한, 절토 사면붕괴 등 보수 · 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시설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보완(23건)하고 수관로 적정성 검토 및 정비 사업이 완료된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검토 등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23건)
-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산(절벽)이나 해안가, 호숫가 등에 설치된 산책로는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나 유지 사용 허가 신청 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
- 일부 지자체(서울 은평구 등)에서 급경사지 붕괴, 산사태 등 재해 위험 상황을 선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급경사지 재해위험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등에 공유
- 한편, 행정안전부는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는 계측 센서 부착, CCTV를 설치 등 상시 점검을 통해 해빙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힘쓸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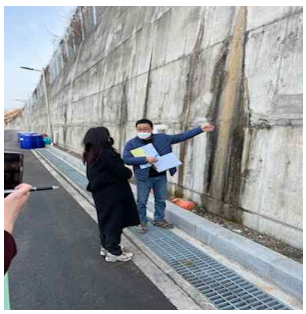
〈 옹벽·석축 점검 〉



옹벽 배수관 정비 필요



절토사면 붕괴위험 구간



옹벽 균열·누수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점검과
☎ 044-205-4243

• 일자
2022. 4. 17.

바다 나갈 땐, '해로드(海Road)' 설치하세요

- 해양안전 모바일 앱(App) '해로드' 편의기능 향상판 출시 -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 모바일 앱(App) '해로드(海Road)*'의 최신 판(해로드 5.0)을 4월 19일(화)부터 배포할 예정**

- '해로드'는 바다 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쉽게 전자해도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조기관에 위치 정보 등을 알려줄 수 있는 앱(App)을 의미
- 지난 2014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약 7년이 지난 지금, 내려받기만 46만 건을 돌파하였고, 해로드 신고 기능으로 구조한 인원이 1,500명에 이르는 등 낚시, 요트·레저보트 등 해양레저 이용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 해양안전 앱(App)으로 자리 잡음
- 하지만, 다양한 해양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나홀로 조업과 소규모로 해양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변의 도움을 얻기가 어려워지고 있어 자동신고기기와의 연동 등 기능개선 시급
-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3월부터 해로드의 전면 개선에 착수하였고, 해상 추락 시 자동신고기능, 기상정보 제공 등 사용자 중심의 편의기능 강화
- 우선, 이용자가 바다에 추락할 경우 별도의 장비인 해로드 세이버와 연계해 해경 등 구조기관에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고, 풍향, 풍속, 파고, 수온은 물론 120개소의 조석 정보까지 해로드를 통해 확인 가능
- 또한, 휴대전화 통신이 잘 터지지 않는 해역에서도 전자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해역별 해도를 해로드에 저장하는 기능도 추가
-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해로드 최신판 배포를 계기로 자동신고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장비인 해로드 세이버 400대를 나홀로 조업 어선과 레저선박 등에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

〈 해로드 앱 서비스 주요기능 〉

<table>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자해도 활용</td>
<td>긴급구조 요청</td>
<td>자동신고장치(세이버)</td>
<td>해양기상 정보제공</td>
</tr>
</table>

• **주관부처**
해양수산부

• **문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
☎ 044-200-5877

• **일자**
2022. 4. 18.

중대재해사고, 사례교육으로 예방한다!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교육(아카데미) 실시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내부 직원 및 지자체 재난안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4월 20일(수) 사회재난 교육(아카데미)* 실시**

* 재난대응·수습에 필요한 필수 및 실무사항을 중점으로 실시하는 행안부 주관 교육(연 6회 정도)

- 지난 1월 27일 근로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채석장 붕괴사고(1월), 부품제조업체 기계 끼임사고(2월), 오피스텔 신축현장 사망사고(3월) 등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난안전 종사자들의 관심 집중

〈최근 사업장 인적사고 주요 현황('18~'22)〉

사고명	인명피해
채석장 붕괴사고('22. 1월)	3명(사망 3)
건물 붕괴사고('21. 6월)	17명(사망 9, 부상 8)
물류센터 화재사고('21. 6월)	2명(사망 1, 부상 1)
의암호 선박전복사고('20. 8월)	6명(사망 5, 실종 1)
화력발전소 운반기(컨베이어) 끼임사고('18. 12월)	1명(사망 1)

- 사업장 인적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수습을 위해서는 재난안전 종사자의 실 사례를 통한 교육 및 학습 필수
- 이번 교육은 「사업장 인적사고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법의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사고 사례를 통한 법의 적용방안 등 실무 내용 위주로 교육할 계획
- 특히 사고사례 과정에서는 법 시행의 배경이 된 화력발전소 내 운반기(컨베이어) 끼임사고를 비롯해 의암호 선박전복사고 및 물류공장 화재사고를 제시하여 사업장 내 관리체계의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등을 상세하게 학습할 예정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재난협력정책과
☎ 044-205-6128

◆ **일자**
2022. 4. 19.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폐기물 관련 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주요내용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관련 시설의 화재통계 분석을 토대로 화재안전대책 수립·추진**

- 최근 5년간(2017~2021년) 폐기물처리업체 등 경기북부 지역 폐기물 관련 시설 화재는 81건(연평균 16건)이 발생해 1명의 부상자와 298억 원의 재산피해 발생
- 화재 원인은 화학적 요인(자연발화 등) 29.6%, 부주의 25.9% 순으로 전체화재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화장소는 설비·저장시설에서 42%가 발생했고 혹서기와 겨울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이 같은 폐기물 관련 시설 화재는 급격하게 연소범위가 확대돼 진화에 많은 인력·장비·시간이 필요하고, 폐기물 종류가 다양해 관련 정보 부족으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 소방대원의 안전 위협
- 실제로 지난 3월 16일 파주시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진압에만 무려 12일이 걸린 바 있으므로, 더욱이 폐기물 특성상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이 많다 보니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는 경기북부 소방관서, 시·군, 사업장 대표 등이 참여하는 '화재예방대책 간담회'를 열어 인근 공설소화전 설치 검토, CCTV 설치, 적치물 간 이격거리 확보, 격벽 설치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화재 예방 의식을 고취할 계획
- 특히 화재 빈발 폐기물처리업체(2회 이상 화재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부 현장 지도·방문 등 특별 관리를 추진하고, 사업장 내 열 축적 방지를 위해 허용량만 보관·저장토록 하는 등 사업장별 자연발화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기 설치를 유도할 방침
- 아울러 초기에 소방력 집중 투입 등 폐기물 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 대응에 주력할 계획



◆ 지자체
경기도

◆ 출처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401010000191

◆ 일자
2022. 4. 1.

서울시, 산부인과·산후조리원 548개소 긴급 화재안전대책 추진

주요내용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내 모든 산부인과 병·의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한 긴급 안전 대책 추진**

- 지난 3월 29일 충북 청주시 소재 산부인과 병원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신생아와 산모 등 122명이 긴급 대피하고, 이 과정에서 45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놀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고 발생
- 이에 따라 산부인과 병·의원과 산후조리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할 소방서별로 긴급 화재안전 컨설팅과 현장점검 실시

  ※ 적용 대상은 산부인과 병·의원 413개소와 산후조리원 135개소 등 총 548개소
- 컨설팅은 소방특별조사반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강화를 지도하고, 소방서장 등 간부 현장안전점검 대상도 선정해 소방안전관리 실태도 점검 실시
- 또한 대상별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시 긴급대피와 신속한 초동대응 방법 등이 담긴 화재예방 안내문 발송
- 이외에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소방시설 정삭작동 및 비상구 등 대피시설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내 가연성물질 적치 여부 및 동파방지 열선 안전성 확인 등에 집중할 계획



• 지자체
서울특별시

• 출처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404000794

• 일자
2022. 4. 4.

대전시, 재난안전교육 체험형 게임 '도로명 런닝맨' 운영

주요내용

■ **대전시는 도로명주소 활용과 재난 안전교육을 접목한 체험형 게임 '도로명 런닝맨'을 한밭수목원과 장태산 휴양림에서 4월부터 운영**

- '도로명 런닝맨'은 도로명주소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런닝맨'과 같이 게임지도로 미지의 목적지인 도로명 시설물(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등)과 사물주소(조형물, 옥외대피소 등)를 찾아가서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는 게임방식으로 운영
- 도로명주소 위치·시설물 찾기뿐만 아니라 재난발생 대비 구조(대피)시설 등 가상의 목적지를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도 포함
- 게임체험을 원하는 시민은 OK예약서비스 및 장태산 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현장 방문하여 체험 가능

• **지자체**
대전광역시

• **출처**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877

• **일자**
2022. 4. 4.

충남 논산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킨다

주요내용

■ **충남 논산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민 중심' 안전보험 시행**

-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는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논산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 자격 부여
-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애, 스쿨존교통사고부상 치료비, 성폭력 범죄피해보상금, 일반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애 등이고, 최대 3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
- 지난해부터는 일반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최대 250만원)가 보상범위로 추가되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더욱 촘촘히 지원할 계획
- 자전거보험 보장범위는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으로 최대 3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
- 보험수익자의 고의, 방화, 자살, 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 등으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제한
-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고조사 및 심사 후 지급 예정

• **지자체**
충청남도 논산시

• **출처**
뉴스프리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2617

• **일자**
2022. 4. 5.

서귀포시, 재난취약기구 안전사고 예방 지속 추진

주요내용

■ **서귀포시는 지난 4일 전기·가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봉사단체인 시민안전봉사협의회와 함께 천지동 소재 재난취약가구 12가구를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점검에는 서귀포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 서귀포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참여
- 시는 도움이 시급한 천지동 소재 재난취약가구 12가구를 선정해 LED전등 교체 · 소화기 보급 · 화재경보기 설치 등을 실시하고, 누전차단기, 전선배선 등의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
- 시는 지난 1월부터 대정읍,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소재 재난취약가구 63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향후 매월 2개 지역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갈 예정

◆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출처**
뉴스제주
https://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77221

◆ **일자**
2022. 4. 5.

속초시, 재난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 **강원 속초시는 재난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을 완비하고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완벽 대응 실시**

* 재난안전 통합관리시템 구축 사업은 재난상황 발생 시 정보의 수집·전파·현장상황 대응 통합관리 시스템 및 실시간 현장 상황파악과 공유를 통해 신속한 대응 지휘체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

- 지난 2006년에 구축된 재난안전상황실은 장비가 노후되어 현장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고, 최근 재난의 복합적인 성격으로 인한 대응기관 증가로 인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위한 회의 공간이 부족하여 부서 간 협조체계에 한계가 있어 공간 확충이 시급한 상태
- 속초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과 자체 시비 9억원 등 총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난안전상황실 기능보강과 협업 부서 재배치를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상황파악 및 전파 등 신속한 대응 지휘체계 확보
- 재난안전상황실, 안전총괄과, 교통과, 교통상황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자연재해 등 재난과 그와 연관된 교통상황의 업무 연계를 위한 공간을 재배치하였고,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및 현장 상황관리 대응체계 통합관리를 위한 영상표출시스템 설치와 장비 보강
- 이번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협업이 가능해져 재난 사고 시 빠른 상황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첨병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지자체**
강원도 속초시

◆ **출처**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4051445220280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일자**
2022. 4. 5.

충남도, 자연재해 발생 따른 저수지 붕괴·파괴 대비 훈련

주요내용

■ **충남도는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저수지 붕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 실시**

-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할 필요를 느끼고, 훈련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고, 문제점을 발굴해 실제 재난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 추진
- 도내에는 총 137곳의 저수지(저수량 30만t 이상)에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돼 있으며, 3년 주기로 비상대처 훈련 실시하고 있으며. 도는 1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도내 저수지 40곳을 선정해 지역 여건에 맞춰 현장훈련이나 도상훈련을 실시할 계획
- 이번 훈련은 저수지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도내 15개 시·군 주관으로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저수지가 붕괴·파손된 경우를 가정해 신속한 위기 대응능력과 함께 안전의식을 높일 예정
- 훈련에는 주관 기관과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유사시 대피장소와 대피로 확인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 병행

◆ **지자체**
충청남도

◆ **출처**
충청투데이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775

◆ **일자**
2022. 4. 11.

서울시, 공사현장에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해 사고 방지

주요내용

■ **서울시는 근로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3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공 공사현장에 원격 위험 경고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 이번에 도입하는 스마트 안전기술은 원격 점검 시스템, 중장비 접근 경고 알람 시스템, 근로자 위치 관제 시스템, 환경센서 시스템 등 4종류로 구성

  ※ 해당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모바일 앱, 무선통신 시스템 등도 포함
- 원격 점검시스템은 360도 회전하는 영상 카메라를 설치해 현장을 원격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 발견시 작업자에게 경고하고, 중장비 접근 경고 알람 시스템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 주변 근로자·운전자에게 접근에 따른 위험 경고 제공
- 근로자 위치 관제 시스템은 AP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위치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환경센서 시스템은 공사현장의 산소·황화수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등의 농도를 감지해 전광판에 표출
- 아울러 고소작업 시 영상을 기반으로 추락 등 위험요소를 자동 판별하고 안전 고리 체결 여부 등을 확인하는 스마트 안전고리 시스템도 테스트베드를 거쳐 도입할 예정
- 시는 지난 2월부터 국회대로 지하차도, 상부 공원화 사업 등 건설공사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시범 운영 중이며, 1단계로 이달부터 시가 발주한 300억 원 이상 규모 32개 공사 현장에 이 기술을 우선 도입하고 현재 설계 중인 각 건설 현장에도 반영해 설계하여 내년부터는 모든 건설현장에 도입할 계획

◆ **지자체**
서울특별시

◆ **출처**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413010007395

◆ **일자**
2022. 4. 13.

양천구, 어린이 공원 26개소에 '스마트 공원등' 126대 설치

주요내용

■ **양천구는 여성범죄 취약구역 및 112신고 다발지역 인근 어린이공원 26개소에 스마트 공원등 126대를 설치 완료**

-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9,500만 원 투입
- 설치된 스마트 공원등은 근거리 무선통신망 기반의 IoT신호기가 부착된 LED 조명으로,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계해 작동
- 특히 공원 이용객이 위험상황에 노출됐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긴급 신고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긴급신고' 기능이 있어 유사시 신속한 대응 가능하며, 또한 깜박이는 신호를 통해 긴급 상황을 전파해 경찰과 주변 행인이 신고자의 위치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멸기능 탑재
- 뿐만 아니라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위치정보 연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안등 양방향 제어 감시를 통해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시행
- 아울러 스마트 공원등은 조도 제어 기능을 겸비해 소비전력 절감 효과를 발휘해 구가 역점 추진 중인 제로에너지 공원 전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지자체**
  서울특별시 양천구
- **출처**
  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12280
- **일자**
  2022. 4. 18.

경주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 **경주시는 국가하천(형산강) 내 배수문 37곳에 대해 원격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 경주시는 그간 담당 공무원 및 민간관리자 등이 육안으로 판단해 배수문을 조작하고 있어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며, 사정이 이런 탓에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적기에 배수문을 개폐하지 못해 침수피해가 우려되던 상황
- 이에 사업비 44억 5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노후된 수문권양기 교체, 자동원격제어 설비 및 상황실 구축, CCTV 및 수위계 등을 구축해 홍수 등의 자연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예정
- 이 시스템은 기존 현장제어 방식에서 벗어나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종합상황실에서 하천 수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배수문을 원격·자동으로 제어 가능
- 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국지성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하천 범람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져 침수와 인명피해 예방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경주시가 우수기에 배수문 접근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 건의한 수문 유지관리 개선 사업도 이번 사업을 통해 완료되면서 경주시의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한결 수월할 것으로 기대
-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홍수와 하천 범람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며 앞으로 보다 안전한 하천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쓸 예정



◆ **지자체**
경상북도 경주시

◆ **출처**
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12804

◆ **일자**
2022. 4. 19.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2022년 4월 CSRI 재난안전 Brief